

	논 평	충남도당
2020년 04월 06일(월)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김성서 정책부장(010-4903-22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박경귀 미래통합당 아산을 후보의 네거티브 선동을 규탄한다

박경귀 미래통합당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4월 5일(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관권선거’ 운운하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 선동에 나섰다.

강훈식 후보에 대한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선언이 계속되자 ‘아산시장과 강 후보 측이 같은 여당 소속이 아니었어도 이런 지지가 가능했겠느냐’며 비방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네거티브 선동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려는 박경귀 후보를 규탄하며, 강훈식 후보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지지를 ‘관권선거’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해당 단체에 대한 모욕이다. 정책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힘들어지자 어처구니없는 비방에 나서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또 박경귀 후보가 관권선거 운운한 단체 중에는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포함됐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4월 1일(수) 자

신의 페이스북에 ‘아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지지선언 해줬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는데, 박경귀 후보는 자당 후보 역시 관권선거에 나선 것인지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피로도가 높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는 시름을 덜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충남도당은 근거 없는 선동으로 아산지역 사회단체의 지지선언을 폄훼하는 박경귀 후보의 근거 없는 비방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며, 정책과 미래 비전으로 선의의 경쟁에 나서주길 바란다.